



200-047. 사상사건 기소장 사철

■ 1932년 1월 11일부터 동년 12월 26일까지 사상사건의 예심청구서 및 공판청구서철로 총 50건 수록

- 관련된 인원 201명, 예심청구가 33건, 공판청구가 17건으로 위반법률로 보면 치안유지법 위반이 39건으로 가장 많고 출판법 위반이 6건, 보안법 위반 3건,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건, 범인은닉이 1건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.
- 사건내용은 사상에 관한 사건이므로 조선의 독립을 위한 결사, 유인물 제작 배포 및 共産黨의 조직활동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. 일본인들은 모든 사건을 공산제도사회의 실현에 있는 것으로 귀결지어 민족주의운동까지 공산운동으로 연결시킨 것이 특징이다.
- 판결서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형량을 파악할 수 없어 당사자의 성명 기록은 생략한다. 다만, 다른 문서철에 판결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그 때에 참조할 수 있도록 50건의 색인목록만 기술한다.
- 文宗穆 공판청구서, 南相煥 외 4명 예심청구서, 玄金得 예심청구서, 李平山 외 7명 예심청구서, 金昌洙 외 1명 예심청구서, 金昌洙 외 16명 예심청구서, 李南來 예심청구서, 姜鎮三 공판청구서, 白圭燦 외 9명 예심청구서, 江口文夫 예심청구서, 金在得 외 2명 공판청구서, 安鍾冕 공판청구서, 朴河均 공판청구서, 柳榮京 외 3명 예심청구서, 韓典鍾 외 19명 예심청구서, 鄭在瑛 예심청구서, 李先龍 공판청구서, 梁珣模 공판청구서, 全尙根 공판청구서, 崔金莖 외 5명 공판청구서, 河峴圭 공판청구서, 鄭祥奎 외 4명 예심청구서, 邊基在 외 2명 공판청구서, 張洪琰 공판청구서, 日比野勇 외 3명 예심청구서, 張錫天 공판청구서, 金榮鶴 외 3명 예심청구서, 孔元檜 외 9명 예심청구서, 朴仁燮 예심청구서, 鄭仁純 공판청구서, 金錫鳳 공판청구서, 石景德 예심청구서, 李貞烈 외 12명 예심청구서, 太斗燮 외 10명 예심청구서, 李燐 외 1명 예심청구서, 李億根 외 6명 예심청구서, 楊丁鎮 외 8명 예심청구서, 趙鏞夏 공판청구서, 李相春 외 2명 예심청구서, 權又成 외 3명 공판청구서, 金弼鍊 외 1명 예심청구서, 和田獻仁 외 7명 예심청구서, 金斗楨 외 8명 예심청구서, 權五敬 예심청구서, 尹商德 예심청구서, 鄭甲溶 외 1명 예심청구서, 白迪煥 예심청구서, 朴憲永 외 6명 예심청구서, 梁成灝 예심청구서, 南宮億 외 5명 예심청구서 등이다.